

한우자조금,  
설맞이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한우 직거래장터를 지난 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안심, 등심, 채끝, 국거리, 불고기, 양지, 사골, 우족 등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북 의성서부합우회 마늘소영농조합법인과 전북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참여하며 산지에서부터 매일 신선한 한우가 공급됐다.

할인판매 외에도 직거래장터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한우 부위 다트 이벤트, 한우 불고기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행사 첫날에는 한우 홍보대사 배우 김상중씨가 직접 행사장에 나와 한우 판매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돈자조금,  
쪽방촌 주민에  
한돈 도시락 전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돈과 한돈 도시락을 전달하는 ‘2016 설맞이 사랑의 한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일 열렸던 이번 행사에서 한돈자조금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한돈 선물세트 700개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한돈 선물세트와 ‘희망의 한돈 도시락’을 배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돈 서포터즈와 함께 동자동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역 쪽방촌은 한돈자조금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에 앞서 한돈을 전달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도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한돈 농가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16. 02. 09]

### 낙농육우협회, 제16대 회장에 이승호 前회장 당선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승호 前회장이 당선되어, 오는 3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제16대 협회 집행부를 이끌게 되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월 18일(목)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5년도 결산 및 '16년도 예산 승인, 제16대 임원 선임을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최대 관심사인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승호 후보, 기호 2번 이명환 후보, 기호 3번 손정렬 후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이승호 후보가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지역별 안배에 따라 도(연합)지회별로 선임된 협회 임원을 인준하였다.

이날 협회 대의원들은 FTA에 따른 국내 우유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데도 정부와 진흥회가 그 책임을 농가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대정부 농정활동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또한 대의원들은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체책 수립을 요구하는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과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날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승호

전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내부결속 다져 낙농 위기를 극복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후계자들을 위해 낙농 육우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 육계협회 삼계탕 효능·우수성 적극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육계협회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맞아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방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삼계탕 홍보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명동은 우리나라 관광지 중 방한 중국인들의 최대 방문지로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에 방한하는 중국인들이 명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직접 방한 중국관광객들에게 중국어로 대한민국 삼계탕의 효능과 우수성을 소개하며 추운 겨울 필수품인 따뜻한 핫팩 등 기념품을 나눠줬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두캠페인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우리 삼계탕을 알리고자 마련

했다”며 “방한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에서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삼계탕의 다양한 효능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삼계탕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방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삼계탕의 우수성과 효능을 꾸준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 삼계탕이 수출돼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품 중 하나인 삼계탕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인, 나아가 세계인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김광균 기자 [2016. 02. 12]



## 한국사슴협회 제20대 회장에 서종구 후보 당선



한국사슴협회 제20대 회장에 서종구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월 18일 한국양토양육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57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서종구 후보가 총 39표를 얻어 협회장에 당선됐다.

서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그 동안 협회가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지 못하고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 농가들의 회원가입 기피와 가입된 회원도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협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산경제 안기범 기자 [2016. 02. 26]